

귀농·귀촌 인구 유입 주력

무주군, 안정적 정착 위해 주거·영농 분야 지원사업 추진

무주군이 2026년 귀농·귀촌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히며 인구 유입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는 총 1억 8,900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귀농·귀촌·귀향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와 영농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 기간은 2월 6일까지로 영농 지원과 주택 수리비 지원, 건축설계 비용 지원,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이사 비용 지원, 집들이 비용 등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접수한다.



무주군이 2026년 귀농·귀촌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히며 인구 유입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은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성욱 무주군청 인구활력과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도농복합시의 읍 지역에서 전일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상자와 지원 내용을 모두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무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이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현장 중심 행정 협업 강화를 위해 지난 14일 귀농·귀촌 업무 담당자 간담회를 열어 실무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찾아가는 귀농·귀촌 상담실을 운영해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상담실은 19일 안성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담당자가 귀농·귀촌 지원 사업과 귀농 농업창업, 주택 구매 용자 지원 사업 등에 대해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신청서 작성도 지원한다. 상담 일정은 20일 살천면, 22일 무풍

면, 23일 무주읍, 26일 부남면, 28일 직상면 순이다.

이와 함께 전용 상담 채널 1561-6868과 귀농·귀촌 서포터스 운영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상담과 현장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무주군은 올해 귀농·귀촌 인구 유입에 주력하며 전북형 귀농·귀촌 보급지리 운영 안정화와 상담·민원 분석 기반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귀농·귀촌인의 지역경제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군, 국회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건의

이경영 부군수, 양수발전소 유치·국도 26호선 개량 등 지원 요청

이경영 진안부군수는 19일 국회를 방문해 전북 지역 국회의원실 보좌진들과 면담하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경영 부군수 등 군 관계자들은 한병도 의원실, 윤준병 의원실, 안호영 의원실 등을 차례로 방문해 △진안 양수발전소 유치 지원, △국도 26호선 도로 개량 사업의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등에 대해 건의했다.

진안군은 주천면 대불리·주안리 일원에 총사업비 1.7조 원 규모의 600MW급 양수발전소 유치를 추진 중

이다. 이 사업은 전북자치도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저장 인프라 확충은 물론 새만금 RE100 단지 성공을 위한 필수 시설이다.

특히 군민 77.3%와 사업지인 주천면민의 98.4%가 동의하는 등 높은 지역 수용성을 자랑하고, 유효낙차의 충분한 확보로 경제성이 높으며 수몰 기구가 없는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강점으로 갖고 있음을 강조하며, 신규 양수발전사업지 최종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완주 소양면~진안 부귀면을



있는 국도 26호선(2.4km, 4차로) 도로 개량 사업의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도 건의했다. 이 구간은 급커브와 급경사로 교통사고가 빈번한 위험 구간으로,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개량이 시급한 실정이다.

진안군은 이번 국회 방문을 통해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향후에도 중앙부처 및 국회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인구정책 주민 아이디어 공모

장수군은 인구감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인구정책 주민 아이디어 공모'를 1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저출산 대응 △생활

인구 유입 △경제활동인구 확충 △고령사회 대비 △지역 공동체 조성 등으로 인구 정책과 관련된 분야는 물론 문화·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폭넓은 아이디어 제시가 가능하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고원운장산고로쇠축제 '최우수'

전북 작은마을축제 평가서 선정... 제22회 축제 3월 14~15일 개최

진안군 대표 봄철 축제인 '진안고원운장산 고로쇠 축제'가 '전북특별자치도 작은마을축제' 평가에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진안고원운장산 고로쇠 축제는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채취한 고로쇠 수액을 중심으로 지역의 전통문화와 특산물을 조화롭게 접목한 축제로, 해마다 주민은 물론 방문객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어왔다.

지난해 진안군과 운장산 고로쇠 축제 위원회는 고로쇠 수액을 직접 채취하고 사용하는 '출발! 고로쇠 숲 탐험대', 운일암반일암 관광지와 울창한 숲길을 따라 걸으며 심신의 휴식을 누리는 '진안고원길 걷기'를 개최했다.

특히 진안고원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활용한 이색 체험 '고로쇠 고추장 만들기' 등 자연 속에서 치유와 건강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전통미를 살린 다채로운 공연과 지역 농특산물 판매 부스 운영을 통해 지역 문화와 먹거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자연 치유형 콘텐츠를 선보이며, 진안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귀현 축제위원장은 "이번 최우수 축제 선정은 주민들과 관계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 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진안군민의 자연과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축제로 성장시키고, 주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제22회를 맞는 진안고원운장산 고로쇠 축제는 맑은 산속, 건강 '한모듬'이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운일암반일암 산거점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무주군이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검증 기간인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기에 대해 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할 감정평가사에게 산정 방법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직접 상담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상담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과정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산정 가격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군, 상수도 한파 대비 신속대응반 3월까지 운영

진안군은 오는 3월까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상수도 위급 상황 대비를 위해 신속대응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속대응반은 상수도 담당 공무원과 전문 인력 3개 반 43명으로 구성됐으며, 1월부터 3월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동파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과 복구에 대응을 대비할 계획이다.

특히 △상수도 시설(배수지, 가압장) 사전 점검 △취약지역(외딴집, 고지대 등) 집중관리 △동파 발생 시 긴급 복

구 및 임시 급수 지원 △주민 대상 동파 예방 요령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계량기 보호함 보온 상태 점검, 잠기간 외출 시 수도관 관리 요령 안내 등 생활 속 동파 예방 수칙을 적극 안내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상수도 동파 및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진안군 상하수도과(430-8732~8740)로 연락하면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오리엔테이션

진안군은 19일 군청에서 2026년 겨울방학 행정인턴 사업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군은 지난 2018년부터 행정인턴 사업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다양한 행정 실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행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 요령 교육과 민원인에 대한 안내 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이번 행정인턴으로 선발된 10명은 오는 2월 13일까지 한 달간 분청, 면 행정복지센터, 진안군 가족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배치돼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사회 경험을 쌓을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동계 대학생 행정체험 오리엔테이션

장수군은 19일 군청 군민회관에서 2026년 동계 대학생 사회 체험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3주 간의 행정체험 프로그램을 공식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최희선 장수군수와 선발된 아르바이트 참여자 34명이 참석해 첫 일정을 함께 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대학생들에게 청소년문화의집과 각 읍·면 작은 도서관 등 행정기관에서의 근무 기회를 제공해 행정업무 보조, 민원 안내 등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며 공공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기 위해 기획됐다.

방학기간 동안 실제 행정 업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현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사회에 대한 애郷심을 키워 사회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장수군은 지난 9일 공개 점선추첨을 통해 특별선발 지원자 11명을 제외한 일반선발 지원자 64명 중 23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했으며 총 34명이 이번 동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1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일정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작은도서관 등에서 다양한 분야의 대민행정 업무를 체험하게 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전화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